

## 제233호 / 2004년 1-2월호

▶ 발행 : 경상대학교 / 편집 : 홍보실 /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 ☎(055)751-6082 \* 84 / FAX (055)751-5049

---

### 새소식

- 2004년도 시무식
- 2004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
- 2004학년도 편입생 모집
- 교명변경 신청
- 일본 이와테현립대학교 단기 교환교수 교류
- 설 명절맞이 불우이웃시설 방문 및 성금전달

###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소식

- 과학체험센터 제3기 교육
- 제4회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
- 6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 수의사국가고시에 수의학과 재학생 100% 합격
- 의사국가고시 99% 합격
- 도서관 자료기증운동 전개
- 영어로 진행되는 Flea Market(벼룩시장) 성황
- 2003-2004년 동계 영어심화캠프 성공적으로 마칩
- 「지리전공」 중등교원임용고시 합격률 전국 최고

### 초청강연 및 세미나 개최

-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울산·경남권역 사업설명회
- 「유럽의 청소년 노동시장」에 관한 학술발표
-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한국사회」에 관한 학술대회

### 교직원동정

- 조무제 총장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기초과학분야 7인)’선정
- 권순기 교수 LG 전자기술원 ‘R&D 우수협력상’수상

- 김영기 교수 행정자치부 ‘주민소환제 자문위원회’위원 위촉
- 최병대 교수 명계곶길로 관절염 효능 식품개발
- 박종만 교수 영국 국제저널 편집위원 선정

### 총동문회 소식

- 신년회 및 집행부 회의

### 인사발령 및 경조사

- 인사발령
- 경조사

### 발전후원회

- 발전기금 출연현황
- 발전기금 출연안내
- 발전기금 기탁서

### 2004년도 시무식

우리 대학교는 2004년 1월 2일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조무제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시무식에서는 2004년 새해에는 국가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 업무수행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전교직원이 함께 다짐하였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공무원윤리헌장 낭독, 조무제 총장의 신년사, 폐식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후 전 교직원이 악수하는 시간을 갖고 새해의 희망과 건강을 담은 인사를 나누었다.

조무제 총장은 신년사에서 “국내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입시업무를 학생처로 이관하고 대외협력 및 홍보업무를 강화하는 등 행정조직 개편,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셋째, 영어전용기숙사 운영 및 영어심화캠프를 통한 외국어교육 강화, 넷째,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고 e-learning을 확대하여 정보화교육 강화, 다섯째, 교수공채 및 승진제

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수경쟁력 강화, 여섯째, 산학협력단을 활성화시키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대형국책과제들을 적극 유치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일곱째, 캠퍼스패트론헤도 도입을 통한 안전한 캠퍼스, 질서 있는 캠퍼스, 쾌적한 캠퍼스 구축, 여덟째, 행정직원들의 자기능력개발과 연수기회 확대를 통하여 대학행정의 전문화 및 선진화 추진, 아홉째, 교명변경, 도내국립대학간 통합, 울산분교설치 문제, 한의대유치 등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현안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년사

존경하는 경상대학교 가족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경상대학교 구성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대학교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조적 인력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식창출의 중심이 되어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우리대학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을 대학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킨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 국가핵심연구센터 선정, 정보통신부 ITRC선정, Bio21센터 및 TIC확대, 교육부평가에서 교육 및 연구분야 우수대학 선정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200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수주하는 등 대학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대학은 국내외의 선진대학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미흡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새해는 우리대학이 제2의 도약을 통해 국내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시업무를 학생처로 이관하고 대외협력 및 홍보업무를 강화하는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영어전용기숙사 운영 및 영어심화캠프를 통하여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고 e-learning을 확대하여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수공채 및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수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새로 출발하는 산학협력단을 활성화시키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 대형국책과제들을 적극 유치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캠퍼스패트론헤도 도입을 통한 안전한 캠퍼스, 질서 있는 캠퍼스, 쾌적한 캠퍼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직원들의 자기능력개발과 연수기회 확대를 통하여 대학행정의 전문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교명변경, 도내국립대학간 통합, 울산분교설치 문제, 한의대유치 등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현안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계획들은 총장을 포함한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총장 취임 후 지난 한달 동안 교수, 직원, 학생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의 마음속에 지난 한해 동안 우리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킨 소중한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으며 하루빨리 각종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프로그램들을 조직화한다면 폭발적인 대학발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와 인터뷰한 학보사 기자는 저의 보폭이 너무 커서 구성원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너무 빨리 걸어가 지나 않을까 걱정도 해 주었고 새해 아침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귀를 보내 주셨습니다.

“히틀러를 만난 독일국민들은 히틀러가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처칠을 만난 영국 국민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이든 성취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저와 인터뷰한 학보사 기자와 저에게 이런 귀중한 경귀를 보내주신 교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를 되새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경상대학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경상대학교를 국내 10위권 대학으로 만들어 갑시다. 2004년이 경상대학교의 해가 되고 아울러 여러분의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2.

경상대학교 총장 조무제

## 2004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

우리 대학교는 1월 8일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 가군 합격자 2,277명을 발표하였으며, 1월 30일 정시 다군 합격자 1,055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시 가군은 2,288명 모집에 6,781명이 지원해 2.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다군은 1,083명 모집에 5,030명이 지원해 4.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snu.ac.kr> 및 ARS 060-606-2095, 060-700-2400, 060-700-4988, 060-700-2111, 060-700-2115, 060-700-4438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이로써 우리 대학교는 수시 2학기, 정시 가군, 정시 다군을 통하여 총 3,870명을 선발하였으며,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2월 10일부터 추가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 2004학년도 편입생 모집

지난 1월 5일부터 6일까지 2004년도 1학기 편입생을 모집한 결과 일반편입학은 118명 모집에 430명이 지원해 평균 3.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사편입학은 총 655명이 지원하였다.

일반 편입학의 경우 사범대학 외국어 교육과 일어전공이 1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사편입학의 경우 수의학과가 5명 모집에 218명이 지원해 43.6대 1, 의과대학 의학과가 4명 모집에 138명이 지원해 3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월 6일 합격자 일반 112명, 학사 54명을 홈페이지(www.gsnu.ac.kr)에 발표하였으며,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2월 12일부터 추가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다.

## 교명변경 신청

우리 대학교는 2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경상대학교」를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요청하였다.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경상대학교의 교명은 경남의 거점 국립 종합대학임에도 사립대학 또는 상경계열의 단과대학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수 신입생 유치, 졸업생의 취업 및 학교발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교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립대학의 위상에 맞는 교명으로 변경하여 국립대학으로서의 교육적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일본 이와테현립대학교 단기 교환교수 교류

우리 대학교는 자매결연 대학인 일본 이와테현립대학교 단기 교환교수 교류사업으로 양 교의 교수 1명을 상호 파견하였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경영대학 허재창 교수(경영학부)를 일본 이와테현립대학교에 2월 1일부터 한달간 단기 교환교수로 파견하였으며, 일본 이와테현립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부 宮城好郎(미야기 요시로) 교수를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일주일간 파견하였다.

일본의 미야기 요시로 교수는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조무제 총장 접견, 대학 주요시설 견학, 자유연구, 자문교수 접견, 마산 치매요양원 방문, 「일본의 민간고령자복지서비스 사업의 동향」이라는 주제 강연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양 교의 단기 교환교수 교류사업은 2001년 12월 양 교의 교류협력체결로 인하여 체재비는 초청대학에서 부담하고, 게스트하우스 및 연구실, 통역요원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일본 대학 중 가장 개혁적인 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와테현립대학교는 일본의 동북 지방에 위치한 지방의 공립대학으로서 이와테현에서 1998년 설립한 대학이다. 이 대학은 간호학부, 사회복지학부, 소프트웨어정보학부, 종합정책학부의 4개 학부(우리나라의 단과대학), 2개의 단기대학(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소프트웨어정보연구과와 종합정책연구과의 2개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학생수는 대학의 입학정원이 440명이며, 2개의 단기대학이 200명, 2개 대학원 입학정원 50명이다.

## 설 명절맞이 불우이웃시설 방문 및 성금전달

조무제 총장은 1월 19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진주기독육아원(진주시 평거동 소재, 원장 정순희)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조무제 총장을 비롯한 1,271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모금한 '희망 2004 불우이웃돕기 성금' 5,197,000원을 진주 KBS(국장 정종철)를 방문하여 기탁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에 앞장서는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주거지가 붕괴되어 일가족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3학년 신지원 학생과 부친이 입원하고 있는 경상대학병원 입원실을 방문하여 교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 과학체험센터 제3기 교육 실시

자연과학대학 내에 설치된 과학체험센터(센터장: 이정숙 학장)는 2003년 여름방학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1기와 제2기 과학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참가를 희망하였던 학생이 약 400명이었으나, 제1기와 제2기 각 72명씩 함께 144명밖에 체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많은 학생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바 있다. 따라서 과학체험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띤 호응에 부응하기 위하여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 중학생 60명을 선발하여 제3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제3기 교육은 우리 대학교 과학체험센터와 신라대학교 WISE(Woman Into Science Engineering) 부산/경남 지역센터(센터장:김기원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제3기 체험교육은 모두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화석과 광물의 세계(지구환경과학), 재미난 화학이야기(화학), 우리와 같이 사는 미생물(미생물), 뜬구름 수학 절대로 하지마라(수학), 뇌 발달의 신비(생물), 멀티미디어 파동과 빛(물리) 등이다. 각 분야의 담당교수들이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지도하였고 학생들을 2-6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소그룹마다 1명의 도우미를 두어 학생들의 체험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이번 과학체험 교육을 통하여 참가 학생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과 과학을 실험·실습·관찰을 통해서 보다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학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에 대한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도 「경상인과 함께」 - '토네이도'의 댄스공연과 강습, 「너를 보여줘」 - 반별 장기자랑, WISE 소개, 최순자 교수(2002년도 여성과학자상 수상, 인하대 WISE센터장), 이혜숙 교수(2003년도 여성과학자상 수상, 이화여대 WISE거점센터장), 이정숙 교수(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경상대 과학체험센터장) 등 여성과학자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공부과정 및 진학, 전공에 대한 현재와 미래, 학생들에 대한 조언 등을 하는 여성과학자와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과학체험프로그램은 향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의 꿈나무 양성, 과학적 자질 발견, 기초과학 기술인력 확보, 과학의 저변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 ▶ 제4회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

우리 대학교 국어교육과와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주관한 제4회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 대회에서 명혜정 학생(고흥 도화중)과 최영희 학생(원광여고)이 한빛상을 차지하였다.

전국 중·고등학교 이야기 대회는 학생들의 말하고 듣는 능력과 기술을 키우고, 이야기를 꾸미는 상상력과 창조력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14개 시도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해 올라온 학생 120여명(지도교사 포함 250명)의 각 시도 중·고교 대표들이 15일부터 남명학관에서 이틀 동안 본선을 치루었다.

한편 이번 이야기대회에서 1등과 2등을 한 학생에게는 우리 대학교 국어교육과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으뜸상: 김명수(충주 중앙중), 전상민(원주 평원중), 박하늘(광주 국제고) ▲ 버금상: 반가히(광주 일곡중), 박정하(제주 한라중), 엄선희(광주 전남여고), 최정호(부산 동래고) ▲ 잘한상: 심보경(부산 중앙여중), 안지영(부산 광목여중), 남궁준영(서울 면목중), 박현진(진주여고), 이소휘(거제 중앙고), 장민아(대구 성화여고) ▲ 사투리상: 박순재(진주 남중), 성민지(부산 강서고) ▲ 지도교사상: 명혜정(고흥 도화중), 최영희(원광여고)

### ▶ 6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의과대학(학장 백원영) 간호학과 학생들이 올해 실시된 간호사 국가고시에 연속 6년 100% 합격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월 30일 실시된 제 44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12,027명이 응시하였으며, 2월10일 발표에 10,739명이 합격하여 전국 평균 합격률이 89.3%에 그친 반면, 경상대학교 간호학과는 연속 6년간 졸업생 전원 100% 합격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이다.

백원영 의과대학장은 “이 성과는 구 부속중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독서실형 정독실을 마련해 학생들이 동시에 1인1좌석을 확보하고 24시간 개방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문항증가로 인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었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컨퍼런스 및 스터디 그룹운영, 학년 지도교수 제도 및 개별지도 등의 성공적 운영과 동창회 및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었다”고 밝히고, “그간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간호학과 전 교수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 ▶ 수의사국가고시에 수의학과 재학생 100% 합격

수의과대학(학장 이효중) 수의학과 재학생 30명은 지난 1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으로 실시한 제 48회 수의사국가고시에서 100% 합격하여 개설 이래 최초의 재학생 전원 합격률을 기록하였으며, 6년제의 학제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배출되는 졸업생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총 361명이 원서를 제출해 355명이 응시하였으며, 최종합격률은 89.3%를 나타냈다.

수의사국가고시는 수의내과학, 수의외과학, 수의산과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해부학,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법규, 수의공중보건학으로 총 10개 과목으로 치루어진다.

이효종 학장은 “6년제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수의사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기초의학분야에도 진출하여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한 공중위생분야에서도 큰 몫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 ▶ 의사국가고시 99% 합격

의과대학(학장 백원영)은 지난 1월 8일(목) - 9일(금) 양일간 실시한 제68회 의사국가고시에 재학생 90명 중 89명이 합격하였으며, 졸업생 3명중 3명이 합격하여 전체합격률 99%의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합격률은 전국 3,881명이 응시하여 3,760명이 합격 전국 평균합격률 96.9%보다 상회하는 99%의 합격률을 기록함으로써 명문의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 ▶ 도서관 자료기증운동 전개

도서관(관장 허보영)은 개관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자료기증 운동을 전개하여 교내·외 기관 및 개인 으로부터 자료기증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에 재직중인 신현택 교수(재료공학부), 권순기 교수(응용화학공학부), 조무제 총장의 은사 이신 김홍안 선생님이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 온 국내·외 전문도서, 교양도서, 학술지, 논문집 등 2,500여 권의 자료를 기증하였다. 도서관에서는 고마운 뜻을 담아 2월 11일 총장실에서 도서기증을 하신 세분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 자료들은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학문연구 및 학술활동과 지역학술발전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학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한 도서 및 비도서(비디오, DVD 등 전자자료) 등 소장 자료를 기증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 수서계(☎ 055-751-5099)로 문의하고,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gsnu.ac.kr>)로 접속하여 도서관안내->자료기증을 참고하면 된다.

### ▶ 영어로 진행하는 Flea Market(벼룩시장) 성황

국제어학원(원장 심홍수)에서는 2003-2004년 영어심화캠프 참가 학생들의 영어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고 절약 정신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외국인강사와 함께 영어로 진행하는 “Flea Market(벼룩시장)” 행사를 1월 16일 영어심화캠프 참가 학생, 미니캠프 참가 학생, 외국인강사 및 지역민 등 4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팝콘, 발 마사지, 페이스 페인팅, 손끝 보기, 기사(knight) 치기, 다트 게임, 미니 농구 게임 등은 외국인 강사가 직접 운영하였으며, 도서, 의류, 장신구 등 생활용품 등 23개 점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였다.

한편 국제어학원은 19일 심홍수 원장을 비롯하여 외국인 강사, 관계 교직원과 함께 Flea Market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불우 아동 1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진주시 상봉서동 소재) “한울타리”를 방문하여 쌀, 라면, 과자, 감귤, 음료수 등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 2003-2004년 동계 영어심화캠프 성공적으로 마칩

국제어학원(원장 심홍수)에서는 2003-2004년 동계 영어심화캠프 수료식을 김순복 대학원장, 심홍수 국제어학원장, 캠프디렉터, 외국인 강사, 캠프 연수생, 자원봉사자, 관계자,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7일 국제어학원 1층 종합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대학생 30명, 중학생 80명, 초등학생 120명 등 총 230명의 학생이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이번 영어심화캠프는 2003년 12월29일부터 2004년 1월 17일까지 3주간 <150시간>에 걸쳐 합숙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 김애란(대학생반)학생이 총장상을, 임지인(대학생반), 정재은(중학생반), 이안나(초등학생반) 학생이 각각 원장상을 수상하였다.

국제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영어심화캠프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외국에 가지 않고도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서 국내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 「지리전공」 중등교원임용고시 합격률 전국 최고

2004년도 중등교원임용고시에 사범대학 지리전공 졸업예정자 10명과 졸업생 4명 등 총 14명이 합격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리전공은 한 학년의 정원이 15명에 불과한 소규모 전공이지만, 작년 14명 합격을 비롯하여 지난 14년 동안 시행된 교원임용고시에서 거의 매년 전국의 최고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그 명성이 한국 지리교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중등교원임용고시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전 교수(지리전공)는 “교원임용고시가 시행된 초기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전국의 최고 합격률을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는 이러한 좋은 전통이 지리전공의 선배 학생들로부터 후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라며 겸양의 모습을 보였다.

##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울산·경남권역 사업설명회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11일 남명학관에서 열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울산·경남권역 사업설명회가 울산, 경남권역 국공사립대학, 시·군·도청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3일부터 13일까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발표에 따라 각 대학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설명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유럽의 청소년 노동시장」에 관한 학술발표

경영경제연구센터(센터장 김학수)에서는 1월 15일 경영대학 4층 세미나실에서 「유럽의 청소년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발표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에 의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김학수 원장의 개회사, 우리대학의 경영학부 이명숙 교수의 「유럽의 청소년 실업-영국 및 독일」, 사회과학연구원의 김영만 박사의 「영국의 국민최저임금과 청소년 노동시장」, 순천향대학교의 송병국 교수의 「교육훈련의 경제적 효과(영국 및 독일)」, 이동임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독일 도제훈련의 노동시장에서 의미와 질 관리시스템」 등의 주제발표 및 송기호 교수(경제통상학부), 김진화 교수(동의대), 정성기 교수(경남대), 이병준 교수(부산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한국사회」에 관한 학술대회

경남문화연구원(원장 허권수)과 한국고문서학회(회장 이영훈) 공동주최로 1월 9일, 10일 양일간 남명학관에서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적으로 전개된 1862년 농민항쟁의 진원지가 되었던 진주 지역의 특성과 조선후기 호적대장을 갖추고 있는 단성지역의 호적대장을 통해 조선후기의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농민항쟁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건태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19세기 단성지역의 결혼관행」, 김경란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단성호적에 나타난 女戶의 국역」, 이영훈 회장(서울대)의 「조선시대 主戶-挾戶 재론」, 이상필 교수(경상대 한문학과)의 「진주지역 문집의 현황과 그 특징」, 양진석 교수(서울대 규장각)의 「삼정의 문란과 단성·진주민란」, 김현영 박사(국사편찬위원회)의 「거창지역의 임술민란 관련 고문서」, 김준형 교수(경상대 사회교육학부)의 「몰락양반층의 군역 침탈에 대한 대응 양상」 등의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진주성 답사, 국립진주박물관 견학, 나동면 내평리, 유계춘묘, 수곡장터 등 진주농민항쟁 유적지 답사, 단성향교, 문익점 면화시배지, 단계고가 등 단성지역을 답사하였다.

### 권순기 교수 LG 전자기술원 'R&D 우수협력상' 수상

권순기 교수(응용화학공학부)는 1월 5일 LG 전자기술원(서울 우면동 소재) 시무식에서 'R&D(연구개발) 우수협력상'을 수상하였다. 'R&D 우수협력상'은 학교나 연구소 등 LG 전자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결과를 내는 팀에게 수상하는 것이다.

권순기 교수가 LG전자기술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과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 EL 분야에서의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호스트 재료, 전자전달 재료 및 정공 속박 재료의 개발이다. 특히 정공 속박 재료는 정공이나 여기자를 발광층에 속박하여 발광 효율을 증가시켜 유기 EL 소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명을 증가시키는 재료이다. 권순기 교수 팀이 개발한 재료를 사용한 유기 EL 소자의 경우 효율은 기존의 정공속박 재료와 비슷하면서도 구동전압이 낮으며 수명을 더 증가시키는 재료이다. 또한 전자전달 물질은 기준발광물질을 사용하여 소자를 제작하였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권순기 교수는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 졸업생이 LG 전자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취업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도의 공동연구과제를 계속하면서 추가로 1개의 공동연구를 더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밝혔다.

## 조무제 총장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기초과학분야 7인)’ 선정

조무제 총장이 한겨레신문사의 기획특집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기초과학분야 7인)’에 선정되었다. 조무제 총장이 이번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기초과학분야 7인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풀리지 않던 세포질 안의 칼슘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밝혀 <네이처>, <미국과학아카데미회보(PNAS)> 등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한국과학상을 수상했으며, 지방대학의 어려운 연구 여건에서도 생명과학분야에서 주목받는 우수한 후학들을 길러내, 경상대학교를 생명과학의 세계적 연구 중심지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기초과학분야 7인)’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한국 안에서 과학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려 애쓰는 사람”, “과학의 사회적 가치, 공익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 “기초과학과 이공계의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등이 제시되었고, 43인의 과학자가 추천되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학문적 업적”, “이미 잘 알려진 인물 보다는 미래에 활동이 기대되는 사람”, “그 활동이 한국 사회에 공익적이고 좋은 영향을 줬거나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인물”이라는 선정기준과 원칙에 의해 조무제 총장을 비롯한 7인을 선정하였다.

조무제 총장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농학석사와 미국 미조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1년부터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상대학교 대학원장, 자연대학장, 우수연구센터(SRC) 소장, BK21사업단장, 과학기술부 21세기 뉴프론티어사업단(작물유전체) 이사장, 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한국분자생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금호생명과학상, 제7회 한국과학상(생명과학분야) 등을 수상하였다.

## 김영기 교수 행정자치부 ‘주민소환제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김영기 교수(정치행정학부)가 행정자치부의 ‘주민소환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정부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무능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정부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를 통하여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the recall)를 제도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김영기 교수는 지방정부의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주민소환제도(대영문화사, 2002)』를 번역, 소개하였고, 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행정연구」에 주민소환제도 관련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앞선 노력이 주민소환제 관련 법률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소환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2월 6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을 제안, 설명하였고, 김영기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최병대 교수 멧게껍질로 관절염 효능 식품개발

최병대 교수(해양생물이용학부)가 최근 멧게껍질에 함유돼 있는 황산 콘드로이친을 이용해 관절염 개선에 효능이 있는 건강보조 식품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병대 교수는 멧게껍질에서 추출한 황산 콘드로이친에 오가피, 작약 등 10여가지 약재를 첨가한 ‘이연(利軟) 액상 콘드로이친’이란 관절염 개선 건강보조 식품을 상품화했다.

이 식품의 주성분인 황산 콘드로이친은 끈적거리는 액체형태로 피부미용과 노화방지, 동맥경화 억제, 뼈형성 작용, 세균감염 억제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 교수는 지난 97년 멧게껍질을 물에 삶은 후 원심분리법을 통해 저농도의 콘드로이친 성분을 분리해 엘라스틴, 콜라겐 등과 함께 연골(물렁뼈)의 성분을 이루는 황산 콘드로이친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으며 2000년에는 이 물질로 ‘콘드로’란 상호로 화장품을 개발한 바가 있다.

최 교수는 “식품 형태로 된 멧게 한약재와 화장품 판매를 통해 매월 2~3t의 멧게껍질을 재활용할 계획”이라며 “이 식품을 꾸준히 복용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완화와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멧게수협 관계자는 “통영일대에는 연간 2만5천여t의 멧게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1만여t이 껍질로 버려지고 있다”며 “멧게 껍질을 이용한 각종 상품이 본격화 될 경우 연안오염 방지는 물론 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박종만 교수 영국 국제저널 편집위원 선정

박종만 교수(응용화학공학부)는 2004년 1월부터 영국 Oxford의 Elsevier Science에서 발행되는 ‘Composites Part B’의 편집위원에 선정되었다. 이 국제저널은 복합재료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가 있으며 SCI Journal이다.

박 교수는 미국의 유타대학교에서 공학석사, 와싱턴주립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 취득, 코넬대학교에서 Post-Doctor을 마친 후에 1992년부터 경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제 SCI 저널 40여편, 국제공동저서 5권 발표, 국내저널 35편, 국제초청세미나 10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45회, 국내학술대회 122편 등을 발표하였으며, 한국복합재료학회 사업이사, 한국접착 및 계면학회 국제협력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8차 국제 SAMPE(첨단재료 및 성형공정공학회)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신년회 및 집행부회의 - 교명변경 추진위원회 구성

총동문회(회장 정구용)는 2월 12일 동문회관에서 정구용 회장을 비롯하여 김천석 고문, 부회장,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및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구용 회장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교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교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자”며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집행부 회의에서는 교명 변경이 주요안건으로 다루어져, 교명 변경의 당위성 및 취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김종철 사무총장, 홍성국 사무국장을 비롯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교명변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교명변경 추진위원회」는 10만여 동문의 힘을 실어 30년 동안 수 차례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숙원사업에 모교와 학생, 동문, 지역민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교원인사

### 보직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윤문숙 → 대학인사위원회 위원(1.15)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김상호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1.12)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부교수 주선태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조교수 김선원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교수 김학수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 교수 전차수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조교수 김주찬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교수 윤강구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초빙교수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봉식(2004.3.1. ~ 2005.2.28.)

### 학술연구교수

경남문화연구원 사재명(2004.1.17. ~ 2005.1.16.)

사회과학연구원 최원석(2004.1.17. ~ 2005.1.16.)

## 일반직 인사

### 전보

경상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정영태 → 의과대학 행정실장(1.26)

### 직무대리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사무관 박정규 → 교무과장 직무대리(1.26)

### 대우발령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및 실습선운영관리센터 기능7급(기관장) 장지수 → 기능6급(기관장) 대우(1.1)

## 경 조 사

### 결 혼

-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고영두 교수 자녀 결혼(2.15)
- 국제어학원 이정숙 조교 본인 결혼(2.15)
-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최용부 교수 차녀 결혼(2.14)
-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김영옥 조교 본인 결혼(2.14)
- 사범대학 행정실 이삼순 선생 삼남 결혼(2.8)
-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김승화 조교 본인 결혼(2.1)
-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및 실습선운영관리센터 조윤희 선생 본인 결혼(2.1)

### 조 사

- 학생기숙사 문송자 선생 시부 별세(1.30)
-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황갑진 교수 부친 별세(1.26)
-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김영호 교수 모친 별세(1.19)

## 발전기금 출연현황

### 발전기금 출연 하시려면...

#### 대학발전기금 출연방법

1. 기부형태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귀중품)등
2. 출 연 기 간 : 수시(전액 출연, 또는 일정한 기간 분할 출연가능)
3. 참 여 신 청 : 옆면에 게재된 발전기금 약정서(copy가능)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하셔서 우송, FAX 또는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됩니다.
4. 문의처 :

대학발전기금조성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주소 :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전화 : (055)751-5045,6040, FAX:(055)-751-6088

####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여러분께서 출연하여 주신 기금은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기금을 출연 하실때 그 용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1. 학술연구기금    2. 장학기금
3. 도서기금    4. 교육시설, 연구시설 및 각종 외곽시설 기금
5. 연구기자재기금    6. 대학문화, 체육 및 후생복지기금

####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1. 기금을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은 경상대학교의 가족으로 우대하며,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은 기존의 건물이나 새로 건립될 구조물에 명단을 각인하여 영구 보존할 예정입니다.
2. 기금을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학의 중요행사에 초대하는 한편, 대학신문, 홍보책자, 대학소식지 등 각종 유인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기금을 출연하신 모든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영수증 및 제반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발전기금 유형별 운영

1. 발전기금조성위원회 : 재단위임 및 지정기탁으로 출연하는 경우
2. 발전후원회 : 제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예) 개척고시관 건립기금 출연 등